

2024년 한국고분자학회 전무이사를 마치며



돌이켜보면, 2024년은 저에게 감사와 영광이 가득했던 한 해였습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한국고분자학회 전무이사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김윤희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동안 결코 쉽지 않은 많았던 순간이 있었지만, 학회 선배님들과 회원 여러분들의 지혜와 능력을 빌려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새해 초 연구비 삭감과 화학·석유 산업 전반의 불황으로 인해 학회 운영이 심각하게 위축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시범적인 신규 학술 프로그램 개발 요청을 훌륭히 수용하여 우수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 김병수 학술 총무이사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늘 조언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운명한 총무이사님, 그리고 크고 작은 학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46분의 운영이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회의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주며 든든히 학회살림을 이끌어주신 4분의 학회 직원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좋은 분들과 함께 한 시간이었기에 더없이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도 학회 발전과 화합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한국고분자학회 전무이사 강영중〉

